

지난 역사적 굴곡을 넘으며

문 덕 진 (교장)

1985년 12월, 신설 학교인 문일 여고가 개교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학교명과 교표, 교복의 협의는 끝났고 초대 교장과 교감도 결정 되었다.

이제 교훈, 교가, 교사채용과 1986학년도 교육계획서를 만드는 일이 남아 있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훈을 만드는 일이었다.

한 집안에 가훈은 무언의 가르침으로 식구들을 이끌어 주듯이 문일여고에도 그 학교를 지탱하게 하고 학생들을 이끌어 줄 만한 큰 뜻을 지닌 교훈이 필요했다.

문성여상(지금의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과 같은 재단으로 출발하였기에 문성여상의 교훈 중 성실과 근면을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는 인문계 고교로서의 특성을 담아 널 덕목으로 '자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문일여고의 교훈으로 성실, 근면, 자율은 만들어졌다

교훈이 만들어지자 학생의 감성을 자극하고 애교심을 키우며 부를수록 모든 학생들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독특한 문일여고의 교가가 필요했다.

이에 옛 은사인 성기열 교수님(인하대 학장님)을 찾아가 뵙고 부탁을 드렸다.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교가를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학교 행사시에는 운동장과 서원회관에는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

그 다음은 1986학년도 교육계획서를 만들어야 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문일여고의 제반 서류들을 만들기 시작하여 두어달에 걸쳐 교육계획서는 완성되었다. 지금에서 보면 몇몇이 모여 만든 교육계획서는 표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많았겠지만 학교 운영을 잘하려는 의지를 담고 만들었기에 1986학년도 교육계획서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상 가슴속에 남아 당시의 상황을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학급수(7학급)의 2배의 교사 채용이 필요했다.

교사는 학생의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분을 모셔 와야 했다.